



아버지학교 LA목회자 12기 수료 목회자들이 수료식이 끝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주님! 제가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LA목회자 12기, 13명 목회자 아버지 수료**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주최 제12기 LA목회자 아버지학교가 18일~19일, 24일과 31일에 걸쳐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목회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가 산다!” 주제로 열린 이번 12기에서는 13명의 목회자 아버지가 수료했다.

강사로는 성요셉 목사(소망장로교회 담임)가 1강(아버지의 영향력), 이준성 목사(멕시코 선교사이며 ANC은누리교회 선교목사)가 2강(아버지의 남성),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이며 미주아버지학교 지도목사)가 3강(아버지의 영성), 그리고 이재환 선교사(Come Mission 대표이며 아프리카 선교사)가 4강(아버지의 사명)을 각각 섬겼다.

또한 이미 아버지학교를 수료

한 4명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등 강의와 고백을 들으며 준비없이 된 아버지로서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가졌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미주아버지학교는 지난 2000년 시작 이래 벌써 700회를 넘겼다. 1세뿐 아니라 2세와 3세 영어권까지 확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중 LA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작년 11

기까지 총 372명의 목회자 아버지가 수료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3가지 사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둘째, 성도와 교회 및 사회와 연합할 것, 셋째,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것 등. 이는 아버지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 알림

#### 기독일보 제1대 이사장 취임감사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미주 한인교계의 역사적 요청아래 기독일보가 2004년 1월 23일 창간된 이래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독일보는 온라인 신문으로 시작해 오프라인 신문으로 사역을 넓힌 이후,美전역에 지사망을 갖춘, 명실공히 미주 한인교계의 대표 기독교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방송의 대표주자 라디오 코리아와 손잡고 매주 기독교 방송 선교에도 동역하고 있으며 2세, 3세 한인을 위한 영자신문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주교계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복음의 나팔소리에 더욱 정진하기 위해 오병의 목사님을 제1대 이사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성도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7월 31일(주일) 오후 3시  
 -장소: 남가주 벨엔교회  
 -주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 “IS에 의한 희생, 2년간 29개국서 2043명”

IS 활동거점 이라크와 시리아 제외...전세계에서 143차례 테러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가 2014년 6월 29일(현지시간) 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래 2년간 활동 거점인 이라크와 시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29개 나라에서 143차례 테러를 자행해 무고한 시민 2천43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CNN방송은 25일 홈페이지에 'IS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그간 IS가 저지른 테러와 장소 등을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먼저, 북미 대륙에선 총 8차례 테러가 발생했다. 모두 외로운 늑

대가 저지른 테러다.

IS의 영감을 받은 용의자가 스스로 급진화해 북미 대륙에서 벌인 테러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올해 6월 올랜도 참가와 지난해 12월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다.

IS와 알카에다에 영향을 받은 용의자들은 각각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보건 시설에서 총기를 난사해 49명, 14명을 살해했다.

테러의 화약고로 변한 유럽에선 총 18차례 테러가 일어났다.

특히 2015년 11월에 발생한 프

랑스 파리 동시 다발 테러와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대량 살상무기와 폭탄 등으로 무장한 테러 집단이 축구장, 콘서트 홀 등 파리의 여섯 군데서 저지른 동시 다발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고 350명이 다쳤다. 프랑스 니스에선 8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IS 직접 테러가 활개를 치는 곳으로 82건이나 발생했다. 2015년 10월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폭발해 224명이 숨졌다.

장소피어 기자

### “핍박받는 베트남 기독교인들”

정부 기독교인들 통제...독살 위험 속 수감생활

베트남 기독교 목회자들 100여 명이 중앙 공인 교회에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후, 독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공인 교회의 목적은 부흥하고 있는 가정교회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기독교구호선교회(Christian Aid Mission)에 따르면, 성도들의 수가 3천 명에 달하는 한 가정교회는 다른 교회와 병합해 500

명만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서 모임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감된 교회 지도자들은 베트남의 중앙 고원 마을 출신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해당 지역과 심지어 베트남에서까지 탈출했으나 강제로 소환되어 감옥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수감됐던 사역 지도자 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 교단선교 선두주자 GSM [13면 참조]

“예수영생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 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ABHE 인가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16년 6월 27일자로 본교가 신청한 크리스천 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개설 승인"

**모집 과정**

신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원격강의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개강: 2016년 8월 29일 (월)  
 온라인 개강: 2016년 9월 5일 (월)  
**ESL 개강 2016년 9월 5일 (월)**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http://www.facebook.com/SLCS.EPT)

- 강우중 교수 (wj kang@pts.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본교(PTSA)의 특징은,

- 5대주(북미주,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의 글로벌 네트워크
-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주의적인 신학
- 기독교 인문학적 성찰과 훈련
- 첨단 테크놀로지와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생 밀착형 온라인교육
- 다양한 장학제도
- 졸업 후 진학과 사역지와의 분명한 연결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edu / office@pts.edu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교사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교사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영이 가능합니다.





이영환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세미나가 베데스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영환 목사.



목회자 초청 건강 세미나가 한인타운 내의 한 식당 세미나룸에서 열렸다.

### “십자가의 도 통해 처음 사랑 회복”

베데스다대학교 주최...이영환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세미나 열려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세미나로 유명한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이번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남가주를 방문했다.

18일~20일까지 베데스다대학교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약 90명

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영환 목사의 책 “십자가의 도”를 교재로 해서 성경 말씀 읽기와 질문 형식의 분석, 기도 선포, 개인 묵상 순서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영환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자권 세미나와 함께 십자가의 도가 짝을 이루어 강단을 더욱 생명력 있게 세워가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 “목회자의 건강 및 호스피스 사역”

목회자 초청 건강 세미나 열려

목회자 초청 건강 세미나가 26일 그레이스 호스피스의 최승호 원장을 초청해 열렸다.

이날 최 원장은 “목회자의 건강 관리 및 호스피스 사역”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최 원장은 목회자들이 주로 겪는 스트레스성 정신 질환과 이런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설명했다. 또 목회자들이 호스피스 원목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우리복음방송과 크리스천비전신문사,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미주 크리스천대학, 나눔과섬김의교회,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함께 준비한 이 행사에는 150명 이상의 목회자 및 사역자,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준형 기자



착공 감사예배에 참석한 교회 및 LA시 경찰 관계자들, 인근 주민과 상권 관계자들이 첫 삽을 뜨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새생명비전교회, 새 건물 착공식 가져”

새생명비전교회가 23일 새 성전 착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 건물은 로즈펠리즈 블러버드와 샌퍼난도 로드가 만나는 곳에 있는 코스트코 건물 뒤 공터로 과거 뉴호프체플이 있던 자리다.

주소는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다.

교회 측은 2개의 건물 가운데 교육관이 포함된 다목적 건물 1층을

먼저 짓는다고 밝혔다. 이 다목적 건물은 4만8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소예배실, 교실, 체육관, 식당, 중보 기도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후 건설될 본 건물은 3만7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본당에는 1,130명이 앉을 수 있다. 이 본 건물 내에 북카페와 교회 사무실 등이 들어간다. 주차장에는 한 번에 1,100대가 주차할 수 있다.

강준민 담임목사는 새 성전 착공 감사예배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LA와 커뮤니티를 복되게 하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6월 6일부터 건물이 완공되는 날까지 554명의 중보기도자가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 두란노아버지학교 LA목회자...12기, 13명 목회자 아버지 수료

[1면으로부터 계속]한편 미주 아버지학교본부에서는 일반 아버지학교와 목회자 아버지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 “비전터치(Vision Touch)”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또한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부관계와 가정관을 심어주기 위한 “부부 가정교실”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내 타문화권 가정사역을 위해 1.5세와 2세들을 중심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아버지학교”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Native American”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무너진 가정회복을 위해 매년 여름 단기선교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중이다.

“아버지의 사명은 가정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세상에 파송된 아버지 선교사다”.

\*문의: 213-382-5454

[두란노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제공]

### “선교 통해 이웃 섬김 실천”

예수인교회의 멕시코 및 이웃 미자립교회 선교

“예수의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 비전인 예수인교회(담임 박정환 목사)가 12일~23일에 걸쳐 ‘예수 미션 프로젝트’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 단기선교는 아리조나 투산팀을 포함 4팀으로 나뉘어 각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섬겼다.

먼저 아리조나 투산 선교팀(박필우 팀장)은 노숙자 선교사역 및 지역교회 봉사로, 멕시코 선교팀(윤태식 팀장)은 멕시코 지역교회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자립교회와의 협력과 동역을 위해 캘리포니아 선교팀(팀장 이호중 목사)과 캘리포니아 선교팀(팀장 유경환 장로)을 방문하여 섬겼다.

이들은 미자립교회가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역하기 위함이다. 이들 이웃 교회 선교에서는 직접 주일예배를 참가하며 예배와 헌금으로 섬기며 지원했다.

예수인교회는 개척한 지 일년도 채 되지않은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이다. 그렇지만 그들과 같은 처지인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며 감동해 가고 있다.

서로 교파가 다르고 성향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형제로서, 미자립교회를 돕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투철한 이 교회는 매달 30%의 교회 예산을 선교비로 지출하며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다.

\*주소: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문의: 434-229-6597

김만영 기자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HAPPY MINISTRY CONFERENCE**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힘든 이민교회 현장에서 행복목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입니다.  
 제자훈련, 성령운동, 셀을 통합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은 **행복목회**입니다.

대상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정원 200명(선착순 등록)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150 S. Brookhurst Dr., Fullerton, CA 92833

일시 2016.8.15(월) 10AM ~ 8.16(화) 1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 “디아코니아(Diakonia, 섬김) 목회”



**젊은층 새가족의 높은 정착률 가져오는 디아코니아 목회**  
**獨디아코니아 통해 신학과 목회, 현장 모두 아우르는 목회에 눈 떠**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  
**예배, 교육, 행정, 對사회활동 등 목회 전반에 통전적으로 적용돼야**  
**최근 다문화가정 위해 다문화 도서관도 세워**

다니던 당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휩싸였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 중이지만 그 미래가 어찌 될 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1년 개신교회의 본산지인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먼저 그 지역 한인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곳 목회를 맡게 됐다. 자녀를 출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독일의 개신교계 사회복지 시설인 ‘디아코니아’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신학과 목회,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디아코니아 목회에 눈을 뜨게 됐다.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즉 섬김은 그들의 삶 속에 뿌리박혀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요한 한리히 비헤른이 시작한 디아코니아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장애인, 노숙자 심지어 저와 같은 이방인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돕습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와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가 섬김이나 사회봉사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들이 병원, 장애인 시설, 양로 시설 등 사회복지에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명 기독교 사회복지를 디아코니아라고 불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이기에 예배, 교육, 행정, 대사회 활동 등 목회 전반에 통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김 목사가 2011년 부임하던 당시 이미 80년 역사를 자랑하던 이 교회에 디아코니아 목회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2천5백 명 교인들이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한 마음이 되었다. 먼

저 당회부터 ‘찾아가는 당회’라고 불린다. 모든 당회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 후에 당회를 한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밥을 퍼주다 보면 자연히 낮아지는 섬김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당회를 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실질적으로 목회 전반에 적용된다. 매년 이 교회는 디아코니아 주제가 있다. 그 주제를 따라 공부하고 준비해서 한 해 동안 섬김의 목회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의 주제는 도농협력이었다. 3주 동안 부흥회 대신 세미나를 열고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온 성도가 고민했다. 성만찬 때마다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주제로 떡을 떼었다. 농촌교회를 찾아가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주고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춘천으로 초청해 설교를 들었다.

춘천동부교회는 성도들이 주일 저녁예배를 농촌교회에서 드리며 그 교회에 헌금하도록 했다. 농촌교회 목회자 자녀의 해외 문화 탐방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탈북민, 도농협력, 민관협력, 다문화 가정 등을 주제로 1년의 디아코니아 목회가 이뤄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세상과 유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점이 청년들에게 어필한 것이다.

이 교회는 새신자 과정을 마치면 바로 디아코니아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6주 동안 교회 주차 봉사나 화장실 청소 봉사를 하면서 이 교회의 섬김 철학을 배우며 교회에 정착한다. 그러나 김 목사는 “디아코니아 목회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만, 이것이 목회 그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경우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철학박사(Ph.D., 오스나브뤽대학교)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아니다. 독일과 미국 북가주에서 20년 이민목회를 해 본 김 목사는 “이민목회자야말로 디아코니아 목회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실천자들이다. 저도 디아코니아 목회를 20년 이민목회에서 배웠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민목회자들을 향해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한 후 “지속성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김 목사는 “많은 이민목회자들은 직접 교회 청소를 하고 식탁도 나르고 운전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그런 섬김의 태도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혹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탈진한다. 그러나 이민목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목회라는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꼭 사회와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란 것이다. 시 관계자를 초청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갑’이 되어서 지역사회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며 자기만족에 빠지고, 세상은 교회가 ‘성도 수 늘리기 마케팅’을 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주도권을 지역사회에 넘겨주고 스스로 ‘을’이 되면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

춘천동부교회는 얼마 전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을 세웠다. 미국에서 이민목회 할 때 북가주의 도서관 작은 코너에 있던 한국어 책들이 너무나 반가웠던 김 목사가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모국어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 작은 섬, 작은 섬김이 언젠가 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것이라 그는 믿고 있다.

“LA에는 유학생도 많고 불법체류자도 많습니다. 노인이나 탈북민 등 교회가 섬기고자 하면 섬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물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맡아가면 사회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김준형 기자

**'갑' 포기하고 '을'되면 세상 위한 교회된다.**

한국에서 디아코니아(Diakonia) 목회 붐을 일으키고 있는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담임)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특강과 인터넷 강의를 하기 위해 최근 남가주를 방문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진솔한 태도로 디아코니아 목회의 본질과 그 가능성을 소개했다.

그가 시무하는 춘천동부교회는 김 목사 부임 후 디아코니아 목회를 표방하며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젊은 층이다. 2014년의 경우 새가족 과정 수료자 87명 가운데 20대가 3명, 30대가 40명, 40대가 18명이었다. 2015년에는 9월까지 새가족 수료자 86명 가운데 20대가 4명, 30대가 29명, 40대가 13명으로 역시 젊은 층의 수치가 높았다. 이 두 통계 모두 청년부는 집계하지 않은 수치이며 새가족들의 정착률은 90%가 넘었다. 이런 부흥에는 디아코니아 목회의 역할이 컸다.

김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

##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교(Th. B, M, Div)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실천신학 박사과정  
독일 오스나브뤽 대학교  
실천신학(디아코니아 전공) Ph.D  
서울장신대 부설 디아코니아 연구소장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팔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까.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리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은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8.15 광복기주년 기념연합예배**

**일시** 2016년 8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World Agape Mission Church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강신권 목사)  
**문의** (213)263-1364 (안기정 목사)

**설교: 정해진 목사**  
남가주 교협 증경회장 / 남가주 명성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미국재부흥운동을 위한 부흥집회가 20일 오후8시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진행됐다.

### “ICM주최 미국재부흥운동...미국 위해 간절히 기도해”

국제도시선교회(ICM·대표 김호성 목사)가 주관하는 제4회 미국재부흥운동이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20일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미국재부흥운동을 위한 부흥집회가 뉴욕지역 목회자들과 대회 참가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국재부흥운동은 120년 전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현재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나가 미국과 한국을 영적으로 다시 각성 시키고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교계운동이다.

이날 집회는 권순원 목사의 오프닝 합심기도에 이어 김재열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김호성 목사가 미국재부흥운동의 취지

를 전했다. 이어 김두식 목사가 영어 메시지를 전하고 마크 박 목사가 합심기도를 진행했다. 부흥집회 이후에는 고신대 태권도선교학과 이정기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태권도선교학과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무대도 이어졌다.

김재열 목사는 환영사에서 “바울도 도시거점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다. 뉴욕 맨하탄과 하버드와 보스턴으로 퍼져나갈 복음전도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운동”이라며 “이 미국재부흥운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목사는 미국재부흥운동 취지 설명에서 “한국 선교 초기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멀고도 먼 이방의 나라였고, 이곳에 아펜젤러와 언더

우드 등 많은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면서 “그런데 이 언더우드를 보낸 선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한국선교와 뉴욕은 무관하지 않다. 이 곳에서 복음에 빛진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나서자”고 권면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미국재부흥운동 기간 동안 신앙이 쇠락하고 있는 미국 동부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곳곳에 심겨져 미국이 영적으로 각성되기를 기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오는 23일 맨하탄에서 진행되는 뉴욕 성서화를 위한 특별기도회와 뉴욕 총력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뉴욕 기독일보



미국장로교(PCUSA)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가 18일~21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머틀비치에서 열렸다.

### “PCUSA,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 개최”

2016년 미국장로교(PCUSA)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가 18일~21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머틀비치에 위치한 Sand Dunes Resort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

총 3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양회에는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담임)가 주강사로 나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서울 빈민촌으로 무당들의 신당이 가득한 동네라는 신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해 예수마을로 변화시킨 그의 간증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중고등부 집회는 올랜도 뉴비전교회 안에 있는 Harvest 교회에서 영어목회를 하고 있는 David Larry Kim 목사가 인도했다.

이 집회 역시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리는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 넘쳤다.

중대서양대회 Warren Lesane 총무는 중고등부 영어집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그는 대회에서 한미노회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앤더슨 김 기자

##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 27. 세네카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의 제자였던 마르쿠스가 스승의 죽음 뒤에 골로새로 돌아왔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아내의 전도에 못이겨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내게 꽤나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세네카가 이끌던 스토아학과가 어떤 이들이던가. 세상이 불로부터 시작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유물론이 그들의 바탕이니 죽음이후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윤리로는 금욕과 마음의 평정상태, 그리고 인류애를 인간이 추구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스토아철학은 로마에 이르러 만개하면서 우리 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철학이 좋아 따르는 이는 어디서나 엘리트 위주의 유별난 소수일 뿐이다.

마르쿠스는 교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사도바울의 편지 필사본들을 가져다 읽더니 얼마 전부터는 70인역 이스라엘 율법과 역사서를 빌려 심취해 있던 중이다.

읽어본 소감이 어떠냐는 내 질문에 어제는 이런 소리를 한다. 바울은 꼭 세네카를 보는것 같다고. 바울이 편지들에서 걸으려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금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면서. 가말리엘 문하생들이 공부한 것은 그들의 율법서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철학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확신이 차있다. 그리고 여호와가 수천년전부터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있는게 지금 로마의 스토아철학이 강조하는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다.

곰곰히 생각하니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요구한 것은 결국 두가지로 요약된다. 거룩함과 사랑. 토라같은 율법서는 물론 이스라엘을 꾸짖느라 바쁜 예언서에서 신은 흠없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 어찌나 반복하여 강조를 하던지 조물주의 거룩함에 대한 집착이 의아스럽던게 한두번이 아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의 네조항은 신에 대한 사랑을, 뒤의 여섯조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다름없다. 당신의 아들 예수도 성경의 가르침을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하지 않았던가.

바울은 은혜에 의한 구원 이후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심으로 가득차야 함을 편지마다 강조했는데, 유대사상은 물론이지만 스토아의 금욕주의의 영향도 있겠다싶다. 바울은 너무 모범생이다. 하여간 여호와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로마의 다른 신과 달리 참으로 도덕적이다. 선택받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건과 사랑의 실천이 아니냐. 세네카가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 반가워할 일이다. (저 자주 - 실제로 위경으로 평가되는 바울과 세네카 사이의 서간문도 남아 있다)

마르쿠스가 회고한다.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를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코웃음치더라도, 인간은 아담때로부터 늘 일탈을 꿈꾼다. 신과 인간의 밀고 당기기가 잔소리 많은 어머니와 말쑥꾸러기 아들을 연상시킨다. 저 하늘을 창조한 신이 어머니와 같은 인내심으로 이 땅의 보잘것 없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것 자체가 나에겐 이세상 최고의 미스테리가 아닐수 없다. <계속>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with Minolta      bizhub Marketplace



#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마태복음 21:42-4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시편118:22-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에게 필요한 돌은 주춧돌입니다. 이것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다고 내어버리게 될 때 그 집은 머릿돌을 제공하신 이의 뜻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계약을 성취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머릿돌의 가치와 용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밖에 갖다 버려 은혜계약의 성취라는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만일 머릿돌로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계선교의 본거지로 인류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집, 영적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로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머릿돌도 제공해 주셨음에도 그 설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를 하고 그 돌의 본질과 용도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문밖에 끌어내어 골고다 언덕에 갖다 내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은 베드로전서 2:4-5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성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성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신성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성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교회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돌의 가치와 용도를 전세계에 택하신 자기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심이 오늘과 같아서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계선교를 하는 것 또한 이 돌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계약의 대상인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계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요 사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12에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실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남자들마다 육체의 표식을 가졌고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돌(Living Stone)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너의 영적인 영원하고 신성한 소망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도록 하라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43절)고 합니다. 허락된 그 나라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신성한 소망을 가꿀 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늘나라를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릿돌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신성한 성전을 짓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소망만 가꾸는 백성이라면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신성한 소망을 목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을 삼은 신앙건축자가 되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2.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돌이 세계만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세계각국에 소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물질로 애를 쓰며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그 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신성한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성령으로 하늘 소망에 결실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

고, 교회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 뒷바라지를 하고 애를 써서 이 돌의 가치와 용도를 소망적인 복음으로 애타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며 사는 인생들의 결과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신성한 소망에 믿음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그 돌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의 구원을 얻지만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볼만 하도록 증거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불신앙으로 거부하며 발악하고 대적했다가 스스로 세상조건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인생은 깨어져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고 하셨으나 그 인생의 심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7:52절 이하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가책을 느꼈음에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않고 도리어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스테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깨달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반석으로 소개되는 예수님, 산 돌이시며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돌의 본질과 가치와 용도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문 밖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3.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구원을 얻고 심판에도 동참을 합니다. 이들은 이 돌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합니다. 이 돌에 붙어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3-4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다고 산 돌인 예수님 곁에 있어도 붙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절대주의 신앙,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만 사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사는 자가 되고 성령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를 예수님께 완전히 붙이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그 돌이 떨어져 부셔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토브 성경 연구

##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무지개 언약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라는 시인은 시로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하늘에 둥그렇게 뜬 무지개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하늘 다리이다. 무지개 색깔 숫자는 각 민족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일곱 빛깔 무지개라고 하지만, 여섯, 다섯, 셋 등 다양하게 말한다. 정밀하게 측정하면 200가지의 색깔이 있다고 한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에 태양빛이 비칠 때 굴절된 빛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방울이 빛을 다양하게 굴절시키기 때문이다. 드물게 보이는 쌍무지개는 더욱 아름답다. 첫 번째, 무지개처럼 밝지는 않지만, 원래의 무지개 색깔과는 거꾸로된 배열로 같은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두 무지개는 공통적으로 양쪽 끝이 땅에 닿아있고, 높은 부분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무지개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식구를 대상으로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

무지개는 죄인과 생물의 생명을 더 이상 대홍수 때처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이다. 비가 온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언약의 시행자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둘째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이 언약으로 자신을 얹어매겠다는 것이다. 이 언약은 그러므로 “용서의 언약”(the covenant of forgiveness)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보시고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는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셋째로 무지개 언약은 “안식의 언약”(the covenant of safety)이다. 무지개는 커다란 활 모양이다.

그 커다란 활은 하늘을 향하여 있다. 커다란 활을 당겨 화살을 쏘면 화살은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리한 못과 창에 찔려 돌아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셨다.

후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의미이다.

무지개 언약이 제시되는 창세기 9:8~17절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7번, “무지개”라는 말이 3번, “영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 내 무지개라는 말을 사용하시니 이 무지개로 상징되는 언약은 대홍수 이후를 관통하는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첫째로 “은혜의 언약”(the covenant of grace)이다. 이는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이다. 인간의 심성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인간과 연결하여

## 완전함은 능력 아닌 자격

라인홀드 나이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에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권력은 모든 것을 다할 것 같이 느끼게 한다. 그래서 권력은 교만에 빠지게 한다. 둘째로 지적인 자는 지식이 실전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지적인 교만이다. 세 번째로 도덕적 교만을 가진 자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도덕적 교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이에 대한 정죄이다. 다른 이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지적해야 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정의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심각한 교만이다.

도덕적 교만의 심각한 오류는 바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나라를 다시금 세우 보겠다고 했던 그 수 많은 젊은이들이, 정작 그 사회의 권력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더 더럽고 추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만 때문이다.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고 하신다. 재물을 다 팔라는 것은 저의 완전함을 막고 있는 교만을 팔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구제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도왔으니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닌가?',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함을 막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다. 그 교만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완전해지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성경에서 완전함을 이야기 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 자격은 내 스스로 되지 않는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여전히 능력 면에서 죄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 가지 선언이 주어졌다.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자라는 뜻이다. 자격이 주어졌다. 완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다. 이것을 알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다.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방금 전에 한 청년의 대답 때문이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지금 율법을 다 지켜 온전하다고 생각했느냐... 진짜 온전해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까...’하시면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ies

**Beautiful Church**  
Rowland Heights, California, United States  
**Position: Children's Pastor**  
**Denomination: Baptist-SBC**  
**Job Type: Full Time**

### Job Description:

#### Qualifications

#### Education and Experience:

- \* Bachelor's degree in Children's Ministry or a related field is required;
- \* Work experience in a church-based children's ministry utilizing volunteers is required;

#### Faith and Life:

- \* Must be called by God to minister to children and preschoolers;
- \* Must have a grow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 \* Must be in agreement with the Purpose Statement, Core Values, statements of faith, Constitution, By-Laws and general vision of Beautiful Church;
- \* Must be willing to become a member of Beautiful Church;
- \* Must pass the church's criminal background check proces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nior Pastor;

#### Ministry Skills:

- \* Servant attitude towards God, leaders, other team members, the church, and guests;
- \* Self-motivated with a team approach including the ability to motivate volunteers;
- \* Competent in leadership abilities to include organization, delegation, administ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 Proven ability to work well with parents, volunteers, church staff and children;
- \*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 \* Strong decision making skills;
- \* Demonstrated ability to recruit and coordinate volunteers;
- \* Please submit a résumé, statement of faith and/or personal testimony, a recent sermon video clip or web link, and ministry 3 references.

#### Contact: Sarah Park

beautifulchurch@hotmail.com / (626) 810-3455

###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www.beautifulchurch.or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일지라도 그들이 서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음악적 감동이 적을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호응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면 먼저 서로가 한마음을 이루어야 한다(빌2:2).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것이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다름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빌2:5).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알며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그리스

소망이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드러나는 태도가 겸손이다.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품을 수 있는 태도이다.

이렇게 겸손한자는 다름이나 허영을 구하지 않는다. 왜 다름이 생기는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허영은 알맹이 없는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말한다. 다투는 이유는 내면에 허영이 있기 때문이고 허영을 구하면 다름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빌2: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13:34). 성경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너희 집을 서로 지라(갈6:2),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3).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6:10).



김문수 목사  
나선제일교회

도께서 하나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신비요 복음의 능력임을 믿는다. 모든 교회가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둘째, 겸손해야 한다(빌2:3).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함이다. 성 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첫째가 무엇인냐고 물었을 때, 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겸손이란 어떤 마음인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겸손은 예의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명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제 2회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 일 시 : 2016년 8월 20일 8AM ~ 4:30PM
- 장 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참가비 : \$20 (사역을 쉬고 계시거나 목회를 준비중인 분 면제)
- 대 상 : 이민교회 목회자, 개척 준비하시는 분,  
사역지를 찾아 기도하는 신학생,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

### 오전강의



주강사  
김기섭 목사  
(LA사랑의 교회)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주강사  
이승종 목사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  
이민목회의 출구



주강사  
Rev. Dr. Scott A. Lemenag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lerk of Standards and Credentials  
Evangelical Church Alliance (안수위원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안수

ECA 소속 목사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사역검증을 받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내지않아  
목사자격이 상실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오후강의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캠퍼스사역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김송식 목사  
(SBC 교회개척코디네이터)  
교회개척과 등록



민승기 목사  
(OC교회협의회 회장)  
가정목회도 중요합니다.



조진용 목사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1.5세 목사의 이민목회



Rev. Esau  
(Church on pearl, IFNV)  
다문화사역, 푸드뱅크



성요셉 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희문 목사  
(LA 기쁨의교회)  
전도하는 교회



신상원 목사  
(미주합동대학신학대학원 교무처장)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성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  
교회실버사역



Rev. Stephen Feinstein  
(육군소령)  
군목사역



Rev. Joseph Choi  
(현 육군대위 및 병원원목)  
원목사역



이준성 목사  
(ANC 온누리교회)  
선교적인 교회

군목 원목 강의 예약 필요 / 오후 강의 12개 중 3개 선택수강 가능

주최: US 채플린 연구소 / 주관: 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후원: ECA 한인연합회, OC 교회협의,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 기독일보

연락처: (213) 800-1825





지난 4월 이슬람대학생연대운동이 강원도에 이슬람 금융 유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슬람대학생연대운동

### “강원도, 2017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공식 취소”

#### 도민 안전 우려 정서 고려...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집중

강원도가 지난 3월 할랄타운 조성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 9월 평창에서 열기로 했던 2017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개최도 최종 취소했다.

강원도는 18일 김한수 글로벌 투자총장국장과 윤인재 담당사무관을 WIEF 사무국이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파견, 19일 WIEF 사무국에 2017년 포럼 개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강원도는 WIEF 유치가 사실상 확정적이었으나, 이를 자진 취소했다.

2006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WIEF는 이슬람권 57개 국가 경제, 금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으며, 매년 이슬람 국가들 및 이들을 대상으로 수출, 금융 협력을 하

는 국가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 비즈니스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 왔다. 강원도는 할랄산업과 함께 WIEF를 유치하여 도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슬람 자본 유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할랄산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을 때, WIEF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외교적 결례와 당장의 이익 손실에도 불구하고 WIEF를 철회한 이유는 두 가지다.

도 관계자는 “먼저 WIEF가 테러와 전혀 상관 없는 행사이긴 하지만, 최근 아시아권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도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갈 수 없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2017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이 2018년 2월 평창, 강릉, 정선에서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열려, 전 세계인의 이벤트인 올림픽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치러야 할 입장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 할랄타운 조성 및 이슬람금융 투자 유치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해 온 이슬람대학생연대운동 정형만 대표(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대표)는 이날 “강원도의 WIEF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희 기자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3자가 MOU를 체결했다.

### “선교사 보호 위한 MOU체결”

####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외교부 및 한국위기관리재단과 MOU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테러 단체들의 일상화된 테러 등으로 해외 선교사 및 휴가철 단기봉사활동 참가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사 위기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3자가 지난 2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 행사에는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 한국위기관리재단 김복권 이사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운영이사회 나성균 회장이 참석해 각각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전호중 총무가 배석했다.

상호 협력 내용으로는 해외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위기정보를 3자가 상호 공유하고, 선교사의 위험지역 방문 자제, 외교

부의 안전정보 전파 및 계도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선협 및 위기관리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의 교육훈련 시 재외국민보호 대책 등의 교육자료 제공 및 감사 파견 등에 적극 협력하며, 해외 위기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3자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원만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MOU 체결 후 오후 1시 30분 종로구 종교교회에서는 교계 선교담당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또 이번 외교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위기관리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MCC가 공동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 지킴이’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홍은혜 기자

### “무슬림 선교, 프로젝트 대상 아님 사람으로 봐야”

#### 파키스탄 출신 신학자...미선파트너스 세미나서 제안



아쉬케나즈 아시프 칸 목사 ©미선파트너스

“무슬림과 함께 살아가는 소수 크리스천, 그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무슬림 세미나가 23일 서울 신반포교회(담임 홍문수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무슬림 선교 관계자 및 관심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아쉬케나즈 아시프 칸 목사는 파키스탄 출신 신학자(마닐라 Asian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의 스바라성경신학교(Zarephath Bible Seminary) 학장을 맡고 있다.

아시프 칸 목사는 이날 파키스탄

교회의 역사를 살핀 후,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상호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무슬림이 주류인 지역에서 소수 기독교인의 목사로 살면서 무슬림 이웃과 분리되는 것보다 더 불어 사는 삶을 지향했다.

아시프 칸 목사는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 되었다. 오늘날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슬림들과 관계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시프 칸 목사는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수 많은 변종 자료들, 토론, 신학적 논쟁과 학문적 접근 가운데 의료와 교육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도움에 대해 무슬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한 국가

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과 만날 때 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들의 상처(실제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든)를 공감해야 하고, 과거 기독교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치유 과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무슬림들을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을 경건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같은 긍정적인 접근법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두 공동체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드림교회와 참좋은교회가 문화아웃리치에 나섰다. ©드림의교회

### “시민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아웃리치”

#### 시민콘서트, 도시미관 개선 봉사활동 등 벌여

서울 드림의교회(담임 이상화 목사)와 삼척 참좋은교회(담임 심봉섭 목사)가 연합해 ‘삼척시민을 위한 제2회 시민콘서트’를 19일 저녁 개최했다. 삼척 대학로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콘서트는 삼척 시민들로 구성된 통기타 밴드 ‘더 원 기타’의 연주를 시작했다. 또 흥대

립 등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 실력파 어쿠스틱 듀오 ‘마더 팝콘’과 최근 정규앨범을 발매한 R&B 밴드 ‘그레이 데이’가 출연해 자신들의 자작곡 및 K-pop 등을 연주했다. 작년보다 더욱 많은 연주자들이 참여한 공연을 통해 삼척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수민 기자

##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영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령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허가증 번호,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목회자,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 내야”

## 남침례회 러셀 무어 위원장... 최근 웹사이트 영상 통해 강조



러셀 무어 위원장  
©크리스천포스트

이 영상에서 무어 위원장은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 사이에 인위적인 장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야고보 사도도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만약 여러분이 19세기 버마에 있다면, 남편의 장례식 때 남편과 함께 묻힌 아내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이는 정치적 이슈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

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어 위원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슈들은 특정하게 강조돼 있지 않고, 원칙들을 적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가’와 같은 진지한 철학적 불일치도 있다”고 했다.

무어 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올린 글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정치·문화 참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세속화된 문화에 점점 어색해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예언적인 거리와 예언적인 참여 사이의 긴장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예언자적으로 구별돼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을 판단하는 사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복음과 정의의 연계를 볼 수 있다. 복음의 우선 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불공평과 불의를 뿌리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성경은 하나님 아니다?”

## UMC 최초 동성애자 감독... 신학적 문제점 드러나



카렌 올리베토 감독.  
©UMC

최근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 존 펠퍼리스(John Iemperis)는 주시예큐메니즘 사이트를 통해 “레즈비언 활동가 카렌 올리베토 목사가 최근 서부연회 감독이 되었다”면서 “올리베토 목사의 다소 급진적 신학적 세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연합감리교회 목사인 올리베토 목사는 지난해 그녀가 준수하기로 맹세한 UMC의 장정을 위반하고 다수의 동성혼을 진행해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펠퍼리스는 “2005년 올리베토 목사가 ‘커밍아웃’ 전 UMC 동성애자 모임에서 밝힌 발언과 올리베토 목사가 주도한 2005년 9월 총회 성경 연구 모임에서 전한 그녀의 성경해석을 밝힌 것을 약간의 수정을 더해 다시 글을 게재한다”고 밝히면서 “당시 RMN(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에서 열린 총회 성경 연구 모임을 주도한 올리베토 목사는 자신만의 성경적 해석”을 전했다.

모임 첫날, 올리베토 목사는 ‘사도행전 1장 6~11절’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설교하며 “예수가 승천하며 제자들을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자들이

시아에서 멀어지는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과거에만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RMN 리더가 ‘동성애 행위 수용’에 대한 성경적 논쟁에 대해 물었을 때, 올리베토 목사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전통에 뿌리를 두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동성애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며 UMC가 과거에만 매여 있어 하나님의 전 가족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올리베토 목사는 “교회는 인종 차별과 여성 목회 안수를 허용하기 위해 성경적 규범이나 교회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성경과 전통의 기준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또 올리베토 목사는 “성경에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여성의 사역을 지지하고 있는 근거가 될 부분들은 간과했다”며 진보 신학의 경계선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 영역이 ‘다윈주의, 페미니즘, 해방주의(국교폐지론), 포스트 식민주의, 생태 및 환경 책임주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진보 신학의 아젠다(의제)를 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성경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다”면서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에서 성경의 ‘장점과 결점’ 양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경의 결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택함과 선택의 신학”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장소피아 기자

# “죽음의 두려움과 대면하라”

## 릭 워렌 목사...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새들백교회 담임 리 워렌 목사가 “불치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돕기에 앞서, 먼저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과 대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인 ‘목적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 워렌 목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시편 89편 48절, 즉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를 인용하며 죽음에 대한 글을 실었다.

워렌 목사는 먼저 “당신이 죽음과 대면하는 어떤 이를 돕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죽음은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낸다. 우리는 대개 (무언가가) 노출된다고 느낄 때 숨기 마련이다. 아

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이래로, 나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도피해 계속 숨어왔다”고 했다.

또 리 워렌 목사는 “적어도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을 수도없이 대면했다”면서 “그때 ‘내가 그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릭 워렌 목사가 죽음을 주제로 글을 기고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지난 해 9월 그는 이미 “삶은 죽음과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죽음에 대해 역설했었다.

당시 그 글에서 리 워렌 목사는 “어느 날 당신의 심장박동은 멈추게 되고 당신의 몸의 기능은 정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일-17와버린트 크니  
주중사번-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도 이단사설을 확언하며, 이단기장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정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성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 365-8880 / F.(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8: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공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헌아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안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흥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389-0691 / F.(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합 무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말-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흥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미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신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뒷산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영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4-년 내리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찬양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산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천지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LA에베레츠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금요일성경 집회 - 저녁 7:45      수요일(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8:00      새벽예배: 월-금 5:30am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무슬림 수천 명 기독교로 회심”  
90%가 무슬림이지만...지난 6년간 9만 1천여 명 개종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슬람 교인들의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무슬림 정부가 지배하는 다른 국가들처럼, 방글라데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 1억 6,500만 명 중 약 90%가 무슬림인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권 단체인 ‘크리스천프리덤인터내셔널(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 이하 CFI)’은 지난 6년 동안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9만 1,000여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했다.

무슬림 문화권에서 배교는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다.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후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파루크 알-아메드 목사는 영국 뉴스사이트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방글라데시 북부에 위치한 우리 공동체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아메드 목사는 “쿠리그램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원래 크리스천이었던 한 가정과 무슬림 배경의 한 가정만 있었다”며 “지금은 무슬림이었다 회심한 1,5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의 수는 국가 전체 인구의 약 1%정도인 16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크리스천프리덤인터내셔널’은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가 확장되고 있지만, 신앙으로 인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는 비밀리에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선교 단체인 오픈도어즈UK도 “교회들, 특히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만나는 가정교회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기독교적 상징을 결코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며 “역사적이거나 주류를 이루는 교회들은 이따금 십자가나 다른 종교적 상징을 드러낼 때, 제한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도어즈는 방글라데시를 기독교 박해국 35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교회 9곳이 보안 문제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구타와 강간, 고문을 당해 왔으며, 사회적으로도 여러 형태의 핍박을 받고 있다.

오픈도어즈는 “개종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 이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있다. 다수 무슬림의 압력으로 크리스천들이 상업이나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뿐 아니라, 대부분 그들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방글라데시 경찰이 소수 종교의 박해를 외면하고 있어 무슬림 급진파들은 자주 처벌을 면하고 있다.

지난해 IS와 타 극단주의 단체들이 방글라데시에 침투해 많은 기독교인들과 소수종교인들을 학살하자, 2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난 6월 ‘다카’와 ‘쿨나’ 교구에 일제히 모여 테러 폭력의 위협에 대한 “인류의 각성”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다카 대주교인 패트릭 드로자리오는 기도회에서 방글라데시의 화합과 평화와 조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어 그는 “침묵에 빠진 인류가 핍박과 비밀리에 자행되는 폭력과 살해로부터 깨어나도록 기도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테러리스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핍박받는 베트남 기독교인들”

정부, 크리스천들 통제...독살 위험 속 수감생활로 고통당해



베트남의 기독교인들. ©beekorea

[1면으로부터 계속]수는 “정부는 크리스천들을 한데 모아서 통제하고 성장을 제한하려고 한다. 만약 목회자들이 ‘교회를 합병하고, 500명 규모 이상의 모임을 열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거나 수감된다”고 말했다.

기독교구호선교회는 교도소 내의 환경은 열악하며 원시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베트남 농촌 지역에서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단체 등의 모임이 금지되어 있다. 아이들은 오직 가정에서만 기독교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성도 간의 교제와 헌금 모금도 금지되어 있다.

강혜진 기자





포켓몬 Go 그림을 들고 있는 시리아 어린이의 모습. © 영국 인디펜던트

## “우리를 구해 주세요”

### 시리아 어린이들...포켓몬GO 그림 들고 도움 요청

시리아 운동가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5년 동안 분쟁이 계속되어 온 시리아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진 그림을 든 아이들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페이스북에는 마을과 시골의 아이들이 ‘이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쓰여진 포켓몬 그림을 들고 있는 일련의 사진들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림에는 “나는 이틀리브시 카프르 나블에 있습니다.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에 수 만명이 페이스북 사진을 공유했다. 이는 ‘시리아혁명군 미디어사무소’(RFS)가 세

계적인 포켓몬GO 열풍에 착안해 낸 아이디어다. 이 언론은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시리아인들의 저항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RFS 한 터키 대변인은 “우리는 아사드 정권과 동맹국에 의해 죽거나 공격당하고 있는 시리아인들과 점령 지역의 시리아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번 아이디어는 유니세프가 시리아 아동에 대한 폭력의 종식을 촉구한데서 나왔다. 유니세프 측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체포되거나 납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5만여 어린이 영양실조로 생명 위협”

###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 어린이들...급성 영양실조 고통에 시달려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근거지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에서, 2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생명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 가운데 5분의 1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보르노주에서 24만 4,000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인 4만 8,000명은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유니세프는 “급성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협한 아이들의 수는 최근 계속 증가해 2013년 3만 5,000명에서 2015년 5만 7,000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는 이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르노주를 방문하고 돌아온 유니세프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 지부 담당 매뉴얼 폰테인(Manuel Fontaine)은 “긴급한 도움이 없을 경우, 매일 평균 134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을 수 있다”며 현장의 소식을 알렸다.

그는 “보르노주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물품 구매나 건강보험 혜택에서 끊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이는 어린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인 1억 8,000만 명 가운데 약 250만 명의 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이들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36개 주 중 12개 주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와 안보의 위험 때문에 나이지리아 북부 200만여 명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200만 명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해 피신한 가운데, 약 1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나이지리아 북부를 비롯해 이웃 국가인 카메룬, 니제르, 차드 등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삼고 있다.

지난 6월, 국경없는이사회는 보코하람을 피해 북동 지역으로 피신한 난민들이 머무는 캠프에서 1,200명 이상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 “英정부, 증오범죄대비 교회에 36억원 지원”

### IS 공격으로 프랑스 신부 살해했다는 소식 전해진 직후 발표

영국 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예배 장소에 보안 대책 기금 약 240만 파운드(약 36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원을 비롯한 종교 건물이 ‘보호·보안 대책’ 용도로 쓰이는 이 기금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기금은 26일(이하 현지시각) 엠버 러드 내무장관이 발표한 증오범죄 대책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사원, 회당, 교회 등 예배 장소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미사를 드리던 한 프랑스 신부가 IS의 공격으로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러드 장관은 증오범죄에 대한 경찰 측의 대책을 분석하는 일도 영국 경찰청(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이하 HMIC)에 요청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단속에 나섰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테러 사건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과 ‘대화와 협상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통계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6천 건이 넘는 증오범죄가 경찰에 보고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0%가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10%의 청년들이 종교 관련 증오범죄로, 8%가 인종 혐오범죄로 희생됐다.

러드 장관은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국적, 인종, 종교적인 이유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학대해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사회와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편견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또한 그들에게 전달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모두를 위해 움직이는 21세기의 영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증오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TRemedy 9:30AM-10:00PM  
대형선교회 주일 2:00PM NEXT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날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선교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선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지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 /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c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바드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찬양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s-9:20 오전 11:00  
금요일 기도예배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30  
토요일금학교, 에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흥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민어)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 플러싱 지사 [718]928-3333 / 로스앤젤레스 지사 [213]739-2222 / 토론토 지사 [647]686-6000 / 서울 지사 [02]739-0890

데이빗 강의 여행 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출발확정

제 7차

# 대륙횡단 14일

로스앤젤레스 관광을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 3대 캐년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캐년 관광, 세계 최초 국립공원 엘로스톤, 솔트레이크, 화성에 온 듯한 배드랜드, 미첼시티, 위스콘신 주 메디슨, 건축의 도시 시카고, 클리블랜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세계의 중심지 워싱턴DC, 뉴욕

▶특별출발: 8/14

## \$2,100

(NY-LA 항공포함)

\$230 상당의 옵션이 포함된 놀라운 혜택

1. 은광촌(캘리포 고스트타운)
2. 라스베이거스 야경
3. 수우족의 성지 크레이지 호스
4. 바람의 동굴(\$30/1인)
5. 하우스 온 더 락(\$40/1인)
6. 나이아가라 I-MAX & 스카이론 타워(\$50/1인)
7. 나이아가라 HORNBLOWER 탑승체험
8.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9.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망대



### 오픈 기념

푸른투어에서만 가능한 나이아가라 흥벙크기

제이 김 동행 LA에서부터 모시겠습니다



## 나이아가라/토론토 4일

선착순 30명!

▶특별출발: 9/2(금)

## \$949

(왕복항공 포함)

1. 나이아가라 폭포 도보거리의 호텔숙박
2. 스카이론타워에서 즐기는 특식, 3. 토론토, 나이아가라 관광
4. 토론토 왕복항공 이동 장거리 버스 탑승, 새벽기상 없이 여유롭게 나이아가라를 완전히 즐기는 절호의 찬스!
5. 샌 제임스 아미치 마을, 6. 테이블락/윈폴/원예학교/꽃시계/수력발전소 관광
7. 세계 최상품, 나이아가라 특산물 REIF 아이스와인 시음 8.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관광



### 푸른투어 오픈기념 이벤트



★응모기간: 2016년 7월 8일 ~ 10월 14일

추첨일: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왕복항공권 8월 15일 1장 추첨, 9월 15일 1장 추첨하며 그 외 모든상품 10월 15일 추첨합니다)

★응모처: 푸른투어 사무실, 한국일보 판매부스

(올림픽 갤러리/백화점 / 코리아타운 프라자내 / 시티센터) ※사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그랜드서클 9대캐년+세도나 7일

\$849 ▶ 8/25

예술과 대자연은 만남 "세도나", 거대한협곡 "그랜드캐년",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형성된 "글렌캐년&파벨호수" 빛의 마술 "엔젤롭캐년", 나바호 부족의 성지 "모뉴먼트밸리", 바람이 빚어낸 신비 "아치캐년", 모든캐년을 모아놓은듯한 "캐년랜드", 협곡속으로 들어가다 "캐피틀리프", 붉은 침방들의 향연 "브라이스캐년", 웅장함의 극치 "자이언캐년", 세계최대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이거스"

단풍 한국일주 10월 \$2,560 (항공포함) ▶특별출발: 10/20 전주/해남/순창/한려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설악

## 서부지사

## 동부지사

## 캐나다지사

신상품

라스베이거스/세도나 ▶8/8, 8/22, 9/2, 9/12, 9/26 3일 \$249 (신제품런칭기념)

라스베이거스/세도나/피닉스 ▶8/29, 9/26 4일 \$399

오크크릭캐년, 예술마을 스포츠데일, 아리조나미션, 사구아 국립공원

서부여행의 새로운 표준 3! 4! 5!

3대 캐년	4일	\$389
3대캐년+요세미티/샌프란	7일	\$689
▶매주 화 그랜드캐년/브라이스캐년/자이언캐년		
4대캐년	4일	\$389
4대캐년+요세미티/샌프란	7일	\$689
▶매주 토 3대캐년+엔젤롭캐년		
5대캐년	5일	\$599
5대캐년+요세미티/샌프란	8일	\$899
▶매주 월 4대캐년+모뉴먼트밸리		
그랜드캐년/라스베이거스	3일	\$299
▶매주 수		
미서부실속 ▶매주 수	6일	\$599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화/금		

오/직/푸른 (기간: 7/8~8/31)

나이아가라폭포부 옥스포트 특급 숙박

동부여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5 미동부	5일	\$799
뉴욕, 워싱턴DC, 나이아가라		
6 미동부/천섬	6일	\$899
미동부 5일 + 토론토, 천섬		
7 미동부/보스턴	7일	\$1099
미동부 5일 + 보스턴, 뉴포트		
8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1199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 뉴포트		
9 미동부/캐나다	8일	\$1199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10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1299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 뉴포트		

올랜드 특별상품 ▶매주 화 ▶특별출발: 9/3

올랜드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드/마이애미 5일 \$1,399 6일 \$1,499

▶특별출발 5일 9/3, \$50 할인

리얼 캐나다를 본대 천섬 크루즈 포함! ▶매주 목 신제품런칭기념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1,099 (신제품런칭기념 \$1,399)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 퀘벡 관광, 어퍼타운, 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의사당, 와이너리 방문 -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한국지사 우수 여행인증

고국방문 No 팁! No 옵션! No 쇼핑!

28인승 대형 딜럭스리무진 버스, 최고급 호텔(특1급), 지역 별미식 제공

전국일주	7일	▶매주 토 \$2,199
서남부권	4일	▶매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매주 월/금 \$1,699
남해안일주	4일	▶매주 월/금 \$1,499
미리보는 평창올림픽과 강원권	3일	▶매주 수 \$1,549

퍼펙트 건강검진 (복잡자 HS 멀티비타민 증정) - 리무진서비스 - 강남소재 호텔숙박

플러스 퍼펙트 검진 \$470 (플러스 검진 Only \$35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 간염, 흉부 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골드 퍼펙트 검진 \$520 (골드 검진 Only \$400) 플러스 퍼펙트 검진 + 수면대장 내시경

## LA 일일투어 \$59

▶매일출발 (50인승 전용차량, 한인 가이드 포함/중식불포함) 윌버리 거리/다운타운/다저스 스타디움/그리피스 천문대/힐리웃 거리 로데오 거리/산티모니카 해변/파머스 마켓/크로보물 등

유럽

정통 서유럽 12일 \$3,399 ▶8/8, 8/22, 9/5, 9/1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

정통 동유럽 10일 \$2,999 ▶8/4, 8/18, 9/1, 9/15, 9/29 뮌헨/프라하/크라카우/비엘리츠카/부다페스트/비엔나

동-서유럽 20일 \$5,199 ▶8/8, 8/22, 9/5, 9/1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미니 서유럽 8일 \$2,899 ▶8/8, 8/22, 9/5, 9/1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3,099 ▶9/24,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제공, 입장료 포함 전일정 특식제공: 해물파스타, 송어구이, 호이리케

스페인/포르투갈 11일 \$3,199 ▶9/12, 9/26 리스본/세비아/코르도바/플레도/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3,099 ▶9/12, 9/26, 10/3, 10/17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쿤야, 안탈야, 파묵칼레, 에페소, 데살로니기, 고린도, 아테네

이탈리 일주 7일 \$2799 ▶8/13, 8/27, 9/10, 9/24 밀라노/베니스/피사/피렌체/로마/폼페이

코스타리카 4일 \$850+항공 5일 \$825+항공 6일 \$1,090+항공

하와이 4일 \$799 5일 \$929 6일 \$1,349

멕시코 로스 카보스 4일 \$659+항공 5일 \$800+항공 6일 \$1,000+항공

하와이 퀸카피올라 호텔 4일 \$799

하와이-이웃 픽업 서비스포함 4일 \$929

하와이-이웃 픽업 서비스포함 3일 \$1,349

멕시코 로스 카보스 4일 \$659+항공

멕시코 로스 카보스 5일 \$800+항공

멕시코 로스 카보스 6일 \$1,000+항공

All inclusive 서비스 칸쿤 4일 \$800+항공 5일 \$950+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는 선택 아닌 필수...복음씨앗 계속 뿌려야

## 교단선교의 선두주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지난 세기 세계선교는 단순한 복음전파였다. 이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시대를 맞고 있다. 선교대상, 민족, 문화, 인터넷과 SNS 저변화, 이슬람 불복의 민주화 등이 선교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중략)보트는 속력이 생명이다. 범선은 방향이 생명이다. 그런데 방향만 잘 잡으면 속도는 언제든지 낼 수 있다. 한국 선교는 보트선교를 할 것인지 범선선교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예영 B&P) 중 조용성 GMS훈련연구개발원장 '한국선교의 근간 연구개발' 기고문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GMS)총회 본부건물.



GMS 이사장 김재호 목사.

### ■ GMS(총회세계선교회)

GMS(Global Mission Society)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독립 선교단체이다. 그 까닭에 현재 GMS의 이사장인 김재호 목사는 'GMS는 교단선교'라는 자부심이 크다. 그가 세계 각지를 돌며 파송된 현지 선교사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단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 교단이 전국에 걸쳐 143개 노회를 통해 11,593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내 중요 교단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교단 차원의 지원을 통한 선교 열매가 얼마만큼 클지, 가히 짐작 가능하다. 교단 선교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계선교 범선의 방향 키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다.

### ■ 세계선교의 중심축 GMS

GMS의 역사는 독노회를 조직하고 해외 선교부에서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송하기 시작한 19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한식전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하면서 본격적인 세계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GMS는 1970년대에 아시아를 필두로 남미, 북미, 유럽, 호주, 아프리카까지 여러 대륙으로 선교지를 확장했다. 1980년대에는 교단 선교 업무 담당 상설 선교국을 설치하고 선교 행정의 선구자적 길을 개척하며 공산권 개방의 물결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동구에 이르기까지 선교지를 확장해 갔다. 1990년대에는

선교 지역마다 지부를 조직하고 선교본부에서도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선교훈련원과 같은 선교기구를 확장, 정비하며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8년 교단 총회에서 교단 내 선교 기구를 통합하고 교단 선교부를 확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약칭 GMS)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그해 11월 초대 이사장 조중기 목사가 취임했다.

GMS는 1999년 10월 2일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무리길 11-10에 위치한 구 바울의 집을 GMS선교센터로 인수하는 한편, 지난 2014년 12월 1일자로 본부 사무실을 총회 본부에서 이곳으로 독립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당시 이사장 김재호 목사는 "GMS가 월무리로 옮기면서 선교에 올인하고 세계선교의 심장부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만 6천 여명이 넘는 화성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역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또한 2015년 1월 27일에는 GMS 센터 예배당까지 완공하고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당은 예배 및 기타 각종 세미나, 교육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 선교현황

올해 6월 현재 98개국 1,377가정 2,478명의 GMS 선교사들이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67.8%, 1,681명), 유럽(7.1%, 176명), 아프리카(8.6%, 212명), 중남미(5.7%, 142명), 북미(2.4%, 59명), 본국(6.7%, 165명), 오세아니아(1.7%, 43명) 등이다.

### ■ 비전

GMS의 선교비전은 첫째, 선교 초점을 미전도 종족에 두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선교사 배치가 개인적이고 개 교회적인 결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던 부정적 요소(중복 투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선교를 전략적 선교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 오직 '선교'만을 위한 교단선교 선두주자 GMS 98개국에 2,478명의 선교사 파송 전문선교 기관 각 지역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지역선교부와 지부 조직 다음세대 선교 위한 MK지원과 한인디아스포라 중심 선교

사와 축복을 가장 적합한 선교지에 투입, 선교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셋째, 팀 선교 활성화. 전략 선교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팀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 교단교회의 선교 동력화이다. 교단 소속 교회들이 GMS를 중심으로 열방을 향한 세계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상돈 목사, 북미특수위원장

### ■ 제중원

제중원(원장 이용길 목사)은 총회회관 GMS본부에서 시작한지 8년 만인 지난 3월 초, 교통의 요충지인 천안·아산 지역에 선교센터를 개관하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전철 및 KTX를 이용해서 침술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제중원을 통한 침술 전문 선교의 장은 날로 눈부신 의료선교 열매를 맺고 있다. 제중원에서는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도 센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며 침과 침술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 MK사역

선교사 자녀(MK, Missionary Kids)들을 위해 GMS에서는 MK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MK들은 한국 부모를 둔 타문화살이로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 고민기를 지나는 해외 선교사 자녀들이다. 이 MK들을 위해 GMS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

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바로 다음세대의 세계 선교사역의 중심역할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잠재 용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GMS 김재호 이사장은 "GMS에서는 현재 5억의 장학금 조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이 장학금을 토대로 전세계 디아스포라교회와 연결된 MK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미주 OMTC

미주 OMTC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이다.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이 과정은 현재까지 47에 걸쳐 45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선교사가 된 목회자 중에는 일선 현장 목회에서 이미 큰 열매를 맺은 원로 목회자들도 있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이 과정을 전세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 ■ GMS의 미국선교 비전

북미특수위원장인 이상돈 목사는 "한국에서는 미국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상외로 멕시코나 인디언 선교가 꼭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역할은 미주 한인디아스포라교회들이 나서야 한다"며 "지난 5월 19일~22일까지 멕시코 라플린과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일대에서 열린 총회 100주년 기념 미주선교대회 성과는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인지를 반증해 준다"고 지적했다. 미주선교대회는 미주 지역 선교 뿐만 아니라 멕시코 장로교단과의 MOU 체결, 나바호 인디언 자치국과의 친선 강화, 톨차크교회 재건 등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교단 차원아래 현지 GMS 이만중 선교사의 적극적인 노력

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35명을 발굴,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감사의 메달을 수여하게 한 것은 GMS를 통한 멕시코 선교의 큰 이정표가 됐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현지 멕시코민족장로교단(총회장 헤르난데스)과 최초로 MOU를 체결함은 물론, 폐허가 되버린 나바호 인디언 톨차크교회를 재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톨차크교회는 나바호 인디언 선교의 큰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단이 세계적인 교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줬다고도 볼 수 있다.



조기산 목사, GMS 본부 총무

또한 이 목사는 "미국은 남미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알래스카 지역 에스키모인선교에도 매우 중요한 선교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선교지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GMS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디언 선교뿐만 아니라 에스키모인 선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제 대해 본부 총무 조기산 목사는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는 천만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GMS는 이들과 연계한 세계선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 GMS와 한인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아브라함의 디아스포라적 삶과 디아스포라적 삶을 통한 바울의 선교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흠오심의 계획 안에 있었다. 앞으로의 세계선교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급속히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인디아스포라들이 있다.

이제 대해 본부 총무 조기산 목사는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는 천만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GMS는 이들과 연계한 세계선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www.gms.kr  
이영인 기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여름학기 학생모집

여름 학기  
2016년 6월 20일(월)~8월 26일(금) 수업  
(여름학기 등록마감 6월 20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b>신학 대학교</b> <b>신학 대학원</b>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b>일반 대학교</b>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b>홈스쿨링</b>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정연호 칼럼

유대인과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2)

◆모든 유럽인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죽었다

주후 4세기 이후 유럽 사회는 기독교 사회로 변모되기 시작한다. 유럽인들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기독교인으로 죽어갔다.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이 이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다. 과거 유럽교회 평신도에게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의식적으로 골몰할 수 있는 능력이거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세교회 교인들은 무식하였다.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그림(성화)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울 수밖에 없었을 정도다! 그러기에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배우고 전수받은 사상이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뿐이었다.

더욱이 중세 시대, 교회의 가르침이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교회의 신부, 신학자, 목사의 가르침과 사상은, 그대로 평신도에게 전수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문화와 사상은 철저히 교회 문화요 사상이었으며, 이는 서구인들의 가치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교회의 주도권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교회에서 헬라 세계의 이방 교회로 넘어가게 된 주후 2세기 중엽 이후, 특히 4세기의 교부 시대 이후로 교회의 반유대적인 입장이 시작된다. 적어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르침은 17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가르친 반유대적인 내용이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 죽음에 이르는 신학 전쟁: 대체신학

2세기 중엽까지 기독교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이 미약했다. 특히 예배와 제의적 측면에서 그러했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차적 과제는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를 완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작업은 2차 유대인 반란(132-135년) 이후 유대인에 대한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 본격화된다. 로마제국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주변 유대인들의 절기와 예전(rituals) 등을 선호하여 좇아다니는 소위 유대주의자(Judaizer)들도 있었다. 이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대인으로 오인되어 핍박을 받게 되자, 교회는 유대교와의 단절을 서두르게 된다.

이러한 단절 작업의 일환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보는 대체신학(supersessionism)이 등장한다. 유대교는 기독교에 의

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선민의 자리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주장이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 또한 유대 백성으로부터 기독교인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주후 70년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사실이 이러한 신학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부들의 반(反)유대주의 (1): 유대교의 재해석

교부들은 유대교를 신학적으로 압도하기 위해 유대교를 열등하고 악한 종교이자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자 위협으로 묘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고 진정한 선민의 자리에 올리고자 했다. 제롬은 어거스틴에게 쓴 편지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며, ...(중략)...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들이 유해하며 누구든지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키면 마귀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토라)의 마침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교부들은 유대인됨(Jewishness)의 본질적 가치들과 의식들-예컨대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선택받음, 할례, 윤리적 율법, 메시아, 음식 규정, 사밧, 성일, 조상들, 그리고 거룩한 경전들-과 같은 것들을 재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과 성경과 메시아와 또 율법 일부를 취했다. 너희들은 이제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또 지옥의 변방에 던져졌으며, 너희가 살아남은 것은 단지 완고한 악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신(그리스도)을 죽인 자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바나바(Barnabas) 서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유대인들은 이 언약에서 실패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졌다. “그들의 언약이 산산조각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도장이 우리들의 마음에 찍히게 되었다.”



정연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구약학(유대학)

교부들은 할례는 더 이상 유대인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지 못하고, 유대인이 마귀나 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장했다.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는 그의 책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할례는 당신(유대인)이 우리에게서 구별되었다는 표시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홀로 고통받아 마땅한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당신(유대인)의 땅이 황량하게 되고 당신의 도성이 불타게 되는 하나의 표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신(유대인)에게 합당하게 일어났다.”

유대인들을 4세기의 신학자인 시리아의 에프라임(Ephraem)은 ‘할례 받은 개’라고, 존 크리소스톰은 ‘할례 받은 짐승’이라고 불렀다. 터툴리안(Tertullian)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결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의도하셨다”고 주장했다. 히브리성경(구약성경)과 탈무드에는 윤리적인 법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윤리적 원칙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로 매도되었고, 교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를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의 머리에 돌리라고 외친 점에만 주목하였다.

◆교부들의 반(反)유대주의 (2): 율법은 악하다

교부들의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 체계는, 기독교를 우월한 종교로 유대교를 열등한 종교로 대비시키는 것이었다. 유대교는 바리새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란 것이었다.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절기와 관습은 악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마 5:17)이나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목적”(롬 10:4의 ‘teles nomou’를 우리말 성경은 ‘율법의 마침’으로 번역했으나, 전체 문맥상 ‘율법의 목적’으로 번역함이 옳다)을 곧 “율법의 폐지”로 해석하였다. 이는 악한 유대교의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래서 폐지되었다는, ‘율법/은혜’라는 이분법적 사고

의 결과로 나온 해석이다.

이런 관점의 전형적인 모습이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yl)에게서 보이고 있다. 그는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주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빌 3:8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害)’와 ‘배설물’로 여긴 것이 다름 아닌 ‘율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바울이 유대인과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에서 유대적 관습을 좇는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계 2:9, 3:9)라고 보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에 대한 시릴의 이 같은 해석은 대부분의 교부들과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반유대적 신학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천 년 동안 서구 교회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된 신학적 출발점이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따른) 기독교의 반대는, 유대의 토라를 악마시하고 유대인의 종교적 인 삶을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이비드 플루서(David Flusser)의 지적처럼, 토라(율법)에 대한 교부들의 반유대주의적 해석은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즉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뿌리가 된 것이다.

◆회당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만일 당신이 회당을 묘사하고자 할 때, ‘매춘의 집’ 혹은 ‘악의 소굴’ ‘악마의 피난처’ ‘사탄의 요새’ ‘영혼을 빼앗는 장소’ ‘재앙의 무저갱’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을 라틴어(불가타)로 번역했던 성 제롬(347-420년)의 말이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교부조차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 이와 같이 저급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 평신도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회당에 대한 공격  
회당이 ‘악마의 소굴’이라면 마땅히 파괴되어야 할 터. 교회의 지식들이 평신도가 회당을 공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 제국을 압도하게 되면서, 회당에 대한 공격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인 강제 개종이나 추방, 혹은 살해가 뒤따랐다. 383-388년 로마에서, 388년 칼리니쿰(Callinicum)에서, 411-412년 에데사(Edessa)에서, 414년 알렉산드리아에서, 418년 미노르카섬의 마고나(Magona)에서, 그리고 419-422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트랜스-요르단에서, 유대인 회당에 대한 공격으로 유대인들이 죽었다.

◆ 칼리니쿰 회당의 공격과 암브로스의 편지

이상의 회당 파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388년 칼리니쿰에서의 사건일 것이다. 지중해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칼리니쿰에 있는 회당이, 지역 주교의 설교에 자극을 받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불타고 교회로 바뀐 것이다. 로마의 행정관은 방화한 자들을 처벌하고 주교에게 회당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런 명령은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데오도시우스 1세는 유대인들이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때까지 로마 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밀란의 영향력 있는 주교였던 암브로스(339-397년)가 황제에게 주동자들을 옹호하면서, 자신도 회당을 불태우고 싶던 바라고 썼다.

◆ 암브로스는 왜 회당을 불태우고 싶어했나

그도 또한 회당과 유대인들을 독사와 마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브로스는 유대인과의 접촉 자체가 오염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누가복음 4장에 대한 그의 주석이 나타나 있다.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나라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회중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일에 대해서 암브로스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닌가 - 뱀에게 쫓겨 결박되고 마귀의 뱀에 사로잡힌 것처럼 - 위선적인 육체적인 정결을 그 영혼의 내적인 것으로 오염시킨 자들이 아닌가?”

이와 같은 암브로스의 해석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누가복음 주석』(Exposito in Lucam)에서 인용되고 있다. 칼리니쿰 회당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암브로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교와 유대 공동체의 상징인 회당을 파괴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었다. 암브로스는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인되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왜냐하면 “회당은 불신의 장소이고, 또 불경건의 집이며, 정신이상자의 피난처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어**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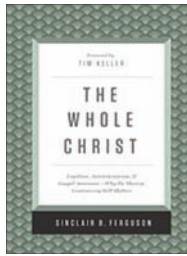


### 신간 추천

#### THE Whole Christ

Feguson, Sinclair B. | Crossay Books | 2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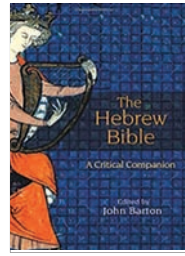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신작으로, 18세기 초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졌던 율법 폐지론을 주제로 한 '대로우 논쟁'을 중심으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당대의 논쟁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율법주의와 율법폐지론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책.



#### The Hebrew Bible

Barton, John | Princeton Univ. Pre | 6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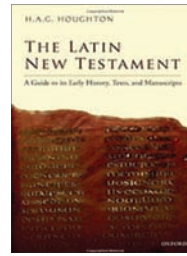
존 바톤(John Barton)의 지휘 아래 총 4부로 구성되어 23명의 저자들이 각 주제를 맡아 쓴 히브리 정경 비평서. 1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 2부는 내러티브, 예언서, 법조문, 지혜문학, 시 및 운문을 분석, 3부는 유일신론, 창조, 인간, 언약, 윤리, 종교적 의미의 공간과 구조, 종교의식들을. 4부는 '구약'으로 역사-비평, 문학적 접근, 신학적 접근 등을 다루고 있다.



#### The Latin New Testament

Houghton, HAGI Oxford Univ. UK | 400쪽

본서는 라틴어 신약 성경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입문서ek. 초대교회 시기부터 중세 후기에 이르기까지 라틴어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준다.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지리와 시간을 중심으로 사본들과 번역자들과 신학자들을 다루고, 2부는 텍스트들의 편집과 자료들을, 3부는 구성된 사본들을 다룬다.



#### Historical and Biblical Israel

Kratz, Reinhard G. | Oxford Univ. UK | 288p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성역사(Historia sacra)'와 실제 역사가 있지만, 그 둘은 다르며 일치시킬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승들에 대해 조사한 책. 1부는 이스라엘의 분열 과정 역사에 대해, 2부는 각 분열된 상태의 서기관 전통 및 토라, 느비임, 케투브 그리고 외경과 위경들의 전승사를 조사, 3부에서는 이러한 전승에 대해 역사성을 분석한다.



## REVIEW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세상을 거스르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 십자가가 지닌 반전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

제10장로교회의 담임이자 휘튼 대학의 총장인 필립 라이크는 이 책을 통해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십자가에 담긴 반전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필립 라이크가 제10장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와 함께, 교회의 전통을 되살려 사순절 기간 금요 정오 예배 때 전한 복음 설교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예배인 만큼 일반 성도에게 십자가의 핵심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복음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반길 만한 소식이 아니었다. 성경은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십자가의 참된 의미 역시 세상이 이해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일곱 가지 성경구절을 하나씩 살펴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반전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적용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한다.

세상이 보기에 수치스럽고 극악하고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그



십자가 복음  
필립 라이크  
생명의말씀사 | 120쪽

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전달하는지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하고 있다.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모욕적이고 하찮고 연약하고 불품없는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이 책은 십자가에 대한 무겁고 어려운 신학적 진술이 아닌 말씀을 통한 쉬운 이해와 적용을 알기 원하는 성도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픈 새신자와 비그리스도인

에게 추천한다. 저자 필립 라이크는 휘튼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담임이었던 제임스 보이스의 후임이자 현재 휘튼 대학의 총장으로, 제임스 보이스와 함께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선포했다.

휘튼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기독교와 문학 관계 분야에서 많은 책을 출간한 리랜드 라이크의 아들로, 개혁주의의 핵심 진리를 풍성한 문학적 감수성을 담아 잘 전달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주정부 허가: MTR-190586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북스리뷰]

# “혼자서도 쉽게 읽고 이해... 지금은 성경 2.0시대”

## 시간 순서 배열, 구약 인물 특징 살린 캐리커처 등 9년간의 대장정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나 성경을 쉽게 풀어 주는 각종 ‘참고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결국 성경 읽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 일 것이다. 성경은 66권이 다양한 장르와 내용으로 구성돼 있기에 차례대로 읽기도, 전체의 맥을 잡으면서 읽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기에,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

배경지식이 전문한 새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고충과 딜레마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만화 <성경 2.0> 시리즈를 기획한 씨엠 크리에이티브(CM creative) 이길우 대표도 그랬다.

마흔이 돼서야 회심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 대표는, 성경 읽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쉽지 않았다. 초신자들을 위한 ‘쉬운성경’으로 1독을 했지만,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학습만화 기획사 ‘하이툰닷컴’을 운영하며 유명한 ‘와이(WHY)’를 비롯해 ‘둘리 탐험’, ‘서울대 인문고전’ 시리즈 등의 작업에 관여했던 이 대표는, 결국 성경 내용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특히 21세기 시대상에 맞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성경 2.0> 시리즈다. 현재 구약이 전 7권으로 출간됐고, 신약이 작업 중이다. ‘텍스트 위주의, 누군가 성경을 대중에게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 1.0이었다면, ‘성경 2.0’은 그림과 글을 통해 혼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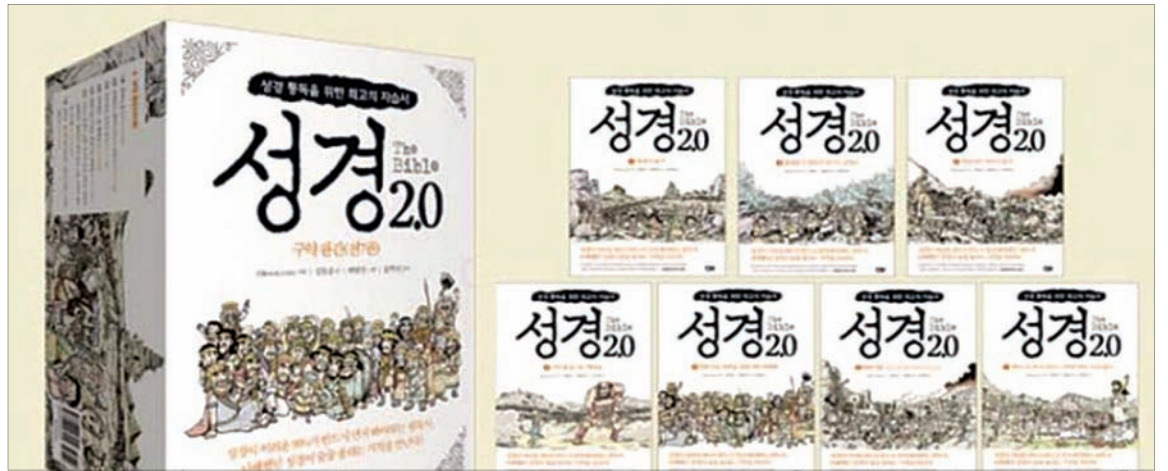
학습만화 제작 경험은 많았지만, 초신자이다 보니 성경 전체 내용을 만화로 옮기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기에 허투루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책은 예정보다 3년이나 늦은 2013년에야 출간이 시작됐고, 9년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해 구약 전 7권이 완간됐다.

스토리 작업은 때맞춰 입사한 ‘목회자 자녀’ 김동순 작가가 맡게 됐다. 평소 ‘제대로 된 성경 만화’를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던 김 작가는 이 대표와 의기투합했다. 그림의 퀄리티도 상당해, 시리즈는 오랜 기독교 역사를 지닌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애초 만화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작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학습만화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에 있는 데다, 국내에서 20여 년간 학습만화만을 만들어 온 이 대표의 경험도 한몫을 했다. 그래서 남다른 그림 수준 때문에 번역서가 아닌가 오해하는 독자들도 간혹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순수 국내 실력”이라고 전한다.

그림 하나하나에도 철저한 고증을 거쳤고, 대사와 설명 등에 있어 성경 본문을 그대로 기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복잡한 내용들은 많은 그림이나 도표, 지도로 친절하게 설명했으며, 연관된 사건들은 ‘Link’를 통해 앞뒤 시리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들도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상황 설정과 대사들을 가미했다.

이렇게 탄생한 <성경 2.0>은 출판 시장에서 독자들의 인정을 받으며 열매를 맺고 있다. 특히 선교



구약편 7권 모습.

지에서 번역 출판해 달라는 연락이 쇄도,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영어 번역은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어서, 곧 영어권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씨엠 크리에이티브 김동영 이사는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배열 자체가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은 데다, 2천 년 전 문화와 관습에서 쓰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성경 2.0>은 성경의 순서가 아닌 시대 순서에 따라 책을 배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당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경 2.0>의 1권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아닌, 창세기와 욥기이다. 2권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3권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룻기, 4-7권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예언서들과 함께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큰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각각의 특징을 살린 캐리커처로 그리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

러한 그림들을 바탕으로 구약 컬러링북을 별도 제작했으며, 주요 인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책

무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4년부터 작은 교회 도서관 지원 사업을 시작해 수백 권의 도서를 지원



1권 모습.

자 크기의 성경 족보를 펴냈다.

특히 성경 족보와 포스터 형태의 성경 지도는 교회에서 바른 신앙 교육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1-7권 시리즈에 들어간 각종 지도들을 모아 별도 출판한 <성경 2.0 쉬운 지도>도 기독교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씨엠 크리에이티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신약 작업을 5년 내에 마

했으며, 군부대나 농어촌교회 등에도 후원하고 있다.

이길우 대표는 “초신자들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쉽게 알리는 일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재들과 자습서들도 편찬할 계획”이라며 “남아 있는 신약편 완간을 위해서도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 “성경 읽는 재미와 기쁨 주는 책”... 13시대 성경 역사를 두 달에 마스터하는 성경 읽기 매뉴얼



말씀 통독 마스터  
조상연  
넥서스CROSS | 440쪽

성경 1독에 번번이 좌절하는가? 말통(말씀통독) 목사를 따라 역사 관통 읽기를 시도해 보자.

<말씀 관통 마스터>는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13시대로 구분해 52일에 관통하도록 이끄는 성경 읽기 매뉴얼이다. 성경 66권 중 14권의 책을 선정해 13시대의 성경 역사를 관통하도록 했다. 각 시대마다 ‘입성하기’로 줄거리를 살피고, ‘둘러보기’로 구조를 파악한 뒤, ‘정복하기’로 내용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한 같은 시대에 기록된 책을 별책 부록처럼 구별되게 편집하여 66권의 책마다 구조와

초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은 ‘성경 1독하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을 것이다.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못하고 <레위기>쯤에서 무너지는 경험 또한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소설책은 하룻밤에도 읽으면서 성경은 왜 그렇게 읽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을까? 분량이 방대해서? 의지가 나약해서? 유혹에 쉽게 빠져서? 성경을 제대로 꿰뚫지 못해 읽어가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아닐까?

그래서 말통(말씀통독) 목사 조상연이 나섰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로마서>를 1,000독하고 성경 보는 눈을 갖게 된 그는 그 후로도 구약 500독, 신약 1,500독, 바울서신 2,500독, <로마서>를 3,500독 하면서 지금도 성경 읽기의 재

미에 폭 빠져 지낸다. 최근 <도전! 성경 1000독>(규장)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기도 했다.

성경읽기, 지금 시작하자. 52일 후 성경 읽는 재미와 기쁨이 내 것으로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40면 / 11,000원

# 안나가? 가나안!

— 소강석 지음 —

신앙의 애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체성,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시각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전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사탄의 세력지** / 시탁다리 예배자 / 264면 / 10,000원
- 레위기상의 정경하락** / 레위기의 신을 정복하라 / 288면 / 11,000원
- 거룩의 재발견** / 거룩의 재발견 / 269면 / 11,000원
- 성명언어** / 성명언어 / 317면 / 13,000원





Congregants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for a vision meeting regarding the multisite on July 24.

##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to Launch Multisite Campus

BY RACHAEL LEE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currently located in Artesia, CA, will be launching a multisite campus in Placentia, CA this fall.

The church plans to have the Placentia services at Valencia High School, and is currently awaiting the contract with the school to be signed and finalized. The Sunday services at Placentia will take place some time between 9 and 9:30 AM, the church said. Children's ministry services for children aged 0 to approximately 10 years old (6th grade) will also be offered during the same time, while the church leaders hope to start youth ministry in the beginning of 2017. Harold Kim, the head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CCSC), will be preaching at the Placentia site as well as the Artesia site, the latter which will continue to hold services at 11 AM and 12:30 PM.

Kim said that he had hoped that CCSC would "be a reproducing church" since the beginning of his time as a pastor at the church. That hope began to materialize about two years ago when the church formed the first of several committees that would form to actual-

ize the vision to be a reproducing church, called the 'Offsite Exploratory Committee' (OEC), comprising of lay leaders in the church.

For about a year and a half, the OEC considered whether there was a need for another church site, and how another church site should be launched if they did find that it was needed. Ultimately, the OEC — which later became the 'Multisite Executive Team' (MET) — decided to launch the multisite.

"In considering how Christ Central could best reach new communities, the OEC carefully evaluated many alternative approaches, engaging leaders at the church through informal surveys on what drew them to Christ Central," the church explained in a Q&A page regarding the multisite on its website. "Overwhelmingly, key stakeholders mentioned the gospel-centered teachings of the pastoral staff led by Pastor Harold. With this in mind, a commissioned church plant with an unknown teaching pastor did not seem like the right approach at this time. A replication of Christ Central with the current pastoral staff seemed to be the most prudent approach for the church's current life stage."

Since then, the church has also

formed the 'Multisite Steering Committee' (MSC), comprising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ession, church staff, diaconal board, the MET, and other groups within the church, and for a two-month period, Kim and members from the MSC visited small groups of the church congregation "to communicate, educate, and be transparent about the multisite process," said David Song, the co-chair of the MSC.

CCSC also hosted a vision meeting regarding the multisite on Sunday, during which Kim shared his vision, and congregants were able to ask questions.

Ultimately, the purpose of launching the multisite is for evangelism, said Kim during the meeting.

"We found that church planting, or having a multisite, are among the best ways to reach more people for Christ," he explained.

"Christian life has a mission while we're still here on earth," Kim added. "This is the point of CCSC. This is the point of my life, of your life."

The church plans to have two soft launch services in October (October 9 and 23), and the official launch date is set for October 30.

## New Life Vision Church Breaks Ground for New Sanctuary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New Life Vision Church held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its new church site on July 23. The new building will be built behind the Costco which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Los Feliz Boulevard and San Fernando Road, where New Hope Chapel was once located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The church stated that out of the two new buildings that will be built, a multi-purpose building which will contain the education department will be constructed first. This multi-purpose building will be some 48,000 square feet large, with a small sanctuary, classrooms, a gym, a cafeteria, and an intercessory prayer room,

among other things. The second building that will be constructed afterwards will be some 37,000 square feet large, and the main sanctuary will have a 1,130-seat capacity. This building will also contain a book cafe, church offices, and other rooms. The parking lot will fit about 1,100 cars at once.

"I hope that this will be a place where many souls are saved, where children grow in the Word of God, and that it becomes a channel of blessing to Los Angeles and the community," said Rev. Joshua Choon-Min Kang, the senior pastor of New Life Vision Church.

554 church members have been participating in a 24-hour intercessory prayer relay since June 6, and will continu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s.



New Life Vision Church hosted a groundbreaking ceremony on July 23 for its new church sanctuary.

## KFAM Secures Donation to Continue Offering Free Counseling Services

BY RACHAEL LEE

Korean families struggling with domestic violence, mental illness, and other difficulties will be able to receive free counseling with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once again this year.

The non-profit began a free counseling service from a fund called the 'R.O.C.K.' (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 fund in 2015 when it received a \$50,000 donation from an anonymous benefactor who wanted to help Korean families who are undocumented or are not

financially able to afford counseling to be able to receive the help that they need. 77 Korean individuals were able to receive free counseling through the R.O.C.K. fund in 2015, which made up some 33 percent of all families that received counseling through KFAM that year. The non-profit once again secured a \$50,000 donation for 2016, allowing KFAM to continue the R.O.C.K. services.

"Many of those who once struggled with depression, anxiety, various trauma, and other difficulties and received free counseling through the R.O.C.K. fund say that

they now live happier lives as they go out and meet with friends," said KFAM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We are thankful to the benefactor who gave such a large donation to help form healthy Korean families, and we hope that those who were hurt and are hurting would be able to recover through the counseling services that KFAM offers."

Meanwhile, KFAM offers various services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such as mental health workshops, and placing Korean children in the foster care system with Korean families, among others.

## LA DMH to Host Forum on Mental Health for Koreans

BY RACHAEL LEE

An open forum on the benefits that Korean Americans can receive from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will be taking place on Thursday (July 28) at Mijoo Peace Church.

"The district chief himself will be attending the seminar to explain the various services and benefits available, and to have a discussion on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the Korean community," explained Young Ahn of the LA DMH Service Area 4 Emergency Outreach Bureau.

Edward Vidaurri, the current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istrict Chief, will be retiring the day after the open forum.

The forum, which will take place from 10 AM to 12 PM, will also discus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mental health issues, and is hosted by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Two Korean representatives from the LA DMH will also be speaking at the forum.

Though Vidaurri will be speaking in English, translations in Korean will also be offered.

## Atlanta Korean American Students Give Back to the Community

BY ANDERSO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During summer vacation, teens can be found being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and living out different experiences. Among those, there are some who decided to spend their vacation meaningfully by serving the community.

Five Korean American students from Walton High School, Lambert High School, North Gwinnett High School, and Taylor Road Middle School met and became friends through their parents, who

attend the same church. Since spring, they brainstormed together on how they could spend their summer vacations to serve the community.

They decided to gather together the things they no longer use and sell them. Starting June 11, they began selling their items at a booth in a flea market.

The money that they earned through the sales became a donation fund that they gave to be used in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s program that supports homeless families. One of the stu-

dents been involved in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s community service efforts each summer. The students visited the non-profit's office on July 21 to give the donation.

"This experience of helping others and getting involved in the community from a young age will help these students to grow as citizens, and this special donation that the students have gathered will be a significant help, beyond the simple numbers," said Connie Jee,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The students visited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to give the donation on July 21.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 LGBT History to Be Taught in California's Public Schools

*Inclusion of LGBT-related topics in history, social science lessons will begin as early as second grade*

BY CHRISTINE KIM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 unanimously approved the implementation of a law that will require the state's public schools to include LGBT history in their curriculums for social science and history classes.

On July 14, a new History-Social Science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was adopted by the board which will include lessons covering key historical figures of the LGBT movement, different family structures, gender roles, as well as the 2015 Supreme Court ruling that legalized same-sex marriage across all 50 states. Inclusion of these topics will start as early as second grade and will take effect immediately.

Peter Tira, an information officer for the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says that the goal is to have the updated curriculum in place by the 2016-2017 school year and updated textbooks by 2017, CNSNews reports.

Randy Thomasson, president of SaveCalifornia.com, helped lead opposition to the bill and has spoken out against its passage.

"SB 48 has no parental opt-out. The only way parents can opt-out their kids from this immoral indoctrination is to opt them out the entire public school system, which is no longer for morally-sensitive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omasson said in a statement.

"This is a priority when fewer than 3 out of 10 kids in California public schools are taught to read proficiently?" he asked.

In 2011, Gov. Jerry Brown signed the Fair, Accurate, Inclusive and Respectful

(FAIR) Education Act, which mandated the inclusion of LGBT history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California and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bill took effect in January 2012,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l was stalled by opposition and failed attempts to repeal the law, along with budget cuts.

The law also includes an update to California's current education code to also cover "...a study of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both men and women, Native Americans, African Americans, Mexican Americans, Asian Americans, Pacific Islanders, European American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mbers of other ethnic and cultural groups, to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of Californ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Most Americans Favor Abortion Regulations to Protect Women's Health, According to Poll

A new survey shows that about 78 percent of all Americans are in favor of regulating abortion clinics to have the same safety standards as outpatient surgical centers. Half of Americans (51 percent) were pro-choice, and as many as 74 percent of pro-choice Americans were in favor of those safety standards.

The Marist poll, commissioned by Knights of Columbus, was conducted on 1,009 adults between July 5 and 12.

About 82 percent of Latinos, 77 percent of African Americans, 84 percent of millennials, and 77 percent of women, irrespective of party affiliations, supported higher standards in abortion clinics.

Also, 70 percent of Americans believe that doctors who perform abor-

tions should have admitting privileges to nearby hospitals. Some 77 percent of millennials, 71 percent of women, and 71 percent of pro-lifers as well as pro-choicers had the same opinion.

Some 62 percent of Americans opposed taxpayer funding for abortion. About 65 percent of African Americans, 61 percent of Latinos, and 45 percent of pro-choice people agreed that funding abortions through taxpayer money was not conscientious. About 84 percent of Republicans, 61 percent of Independents, and 44 percent of Democrats were against taxpayer-funded abortions.

A substantial majority (56 percent) said that doctors should not be forced to perform abortions against their religious beliefs and conscience. About

41 percent of those who were pro-choice also believed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clearly on their desire for abortion restrictions, less taxpayer funding of it, and common sense regulations on this industry to protect women's health," said Supreme Knight Carl Anderson. "Our courts, politicians, candidates and parties should heed this consensus."

"The majority of Americans in favor of abortion restrictions has been consistently around 8 in 10 for the better part of a decade," said Barbara Carvalho, director of the Marist Poll. "Though self-identification as pro-life or pro-choice can vary substantially from year to year, the support for restrictions is quite stable."

## As Tens of Thousands Flee Homes in Sudan, Churches Join Hands to Offer Aid

BY RACHAEL LEE

Church leaders of the Anglican and Episcopal churches have been providing shelter and material assistance for people in South Sudan as tens of thousands have been internally displaced or fleeing the country due to the violence that has persisted in the country.

Though the civil war in South Sudan was supposed to have ended in April, spurts of violence have continued as conflicts between the factions supporting the president, Salva Kiir, and the vice president, Riek Machar, have continued to erupt.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United Nations report released on Friday, over 26,000 South Sudanese people have fled the country into Uganda since July 7, and over 8,300 flooded into Uganda on Friday alone, which the agency says is the highest record of people in 2016 that have fled the country in a single day. Andreas Needham, a spokesperson for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said that 90 percent of those refugees are women and children.

The relief efforts by the church leaders have been organized by the Anglican Alliance, the Episcopal Church of South Sudan and Sudan (ECSSS), and



Refugees in Jamam camp in South Sudan stand in line for water. Pictured in April of 2012. (Photo: Robert Stansfiel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CC)

the ECSSS relief agency called the Sudanese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Sudra).

The ECSSS said in a conference call, according to an Anglican Communion News Service report, that many of those who were displaced have been seeking shelter and help from local churches.

By the request of Sudra, the Episcopal Church in the U.S. said they would provide help for 200 families looking for shelter, according to the report. Sudra also requested help to provide food for 14,400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t is -- as so often --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who bear the brunt of

the violence, who have lost lives, loved ones, and homes," said Dr. Rowan Williams, the former Archbishop of Canterbury, regarding the situation in South Sudan. "The recent hostilities have demonstrated the fragility of the peace agreement."

"The violence in South Sudan and the subsequent insecurity in the region has forced several international agencies to evacuate their personnel from the country," Rachel Carnegie, co-executive director of the Anglican Alliance, told Anglican Communion News Service. "The Church, locally based, stands in the breach,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 China to Close Churches for One Week, Citing Safety Concerns for G20 Summit

China has ordered churches in and around Hangzhou city in the eastern Zhejiang province to close during the G20 summit in order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world leaders when they attend the conference, according to reports. The G20 meeting is scheduled for September 4 to 5, but Hangzhou will observe a public holiday until four days after the summit.

All large-scale prayers and other religious activities will not be permitted in Xiaoshan district in south-east Hangzhou during those six days, to reduce heavy traffic and congestion in the city. Also, all religious places in the bordering city of Jinhua are forbidden to hold any activities between July 1 and Septem-

ber 9. House churches have been shut down before the summit, a Hangzhou pastor told the Global Times.

"During their preparations for the G20 summit, all houses and off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government and report how many people are living in the residence and for what purpose," a pastor told Global Times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he city's underground churches have also been told to not assemble.

"I cannot understand why they have done this... Worshiping God has nothing to do with the G20 summit," Li Guisheng, a Christian human rights lawyer, told The Guardian.

Zhejiang province has the high-

est concentration of Christians in the country, and Wenzhou city in the province is also called the "Jerusalem of the East."

Recently, reports said the local government in Zhejiang province adopted a new law which made it mandatory for some churches to hand over their income and donations to the authorities.

The government crackdown on churches in China in the recent years have led to demolition of about 1,700 churches and over 2,000 crosses since 2014 under the "beautification" campaign known as "Three Rectifications and One Demolition," which the authorities say is directed against "illegal construction" in Zhejiang.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i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